

<제4강>

국어 음운의 변동 2

3) 축약

- 개념 : 두 개의 음운이 합쳐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. 두 음운의 성질을 모두 지닌 소리로 줄어든다.

(1) 자음축약(유기음화, 거센소리되기) : ‘ㄴ, ㄷ, ㅈ, ㄱ’과 ‘ㅎ’이 만나 각각 ‘ㅍ, ㅌ, ㅊ, ㅋ’이 되는 현상. (표준발음법 [제12항])

① ‘ㅎ(ㄴㅎ, ㄹㅎ)’ 뒤에 ‘ㄱ, ㄷ, ㅈ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[ㅋ, ㅌ, ㅊ]으로 발음한다.

놓고[노코] 종던[조:던] 쌓지[짜치] 많고[만:코]

[붙임 1] 받침 ‘ㄱ(ㄱ), ㄷ, ㅈ(ㅈ)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경우에도, 역시 두 음을 합쳐서 [ㅋ, ㅌ, ㅊ, ㅍ]으로 발음한다.

각하[가카] 먹히다[머키다] 밝히다[발키다]

만형[마형] 좁히다[조피다] 넓히다[넌피다]

꽃히다[꼬치다] 얹히다[안치다]

[붙임 2] 규정에 따라 ‘ㄷ’으로 발음되는 ‘ㅅ, ㅈ, ㅊ, ㅌ’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옷 한 벌[오탄벌], 낫 한때[나탄때], 꽃 한 송이[꼬탄송이], 술하다[수타다]

② ‘ㅎ(ㄴㅎ, ㄹㅎ)’ 뒤에 ‘ㅅ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ㅅ’을 [ㅆ]으로 발음한다.

달소[다쏘] 많소[만:쏘] 싫소[실쏘]

③ ‘ㅎ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[ㄴ]으로 발음한다.

놓는[논는] 쌓네[싼네]

<참고> 많소 → [만쏘]에서 ‘ㅎ’과 ‘ㅅ’이 결합하여 ‘ㅆ’이 되는데, 이것도 일종의 축약으로 볼 수 있다. ‘ㅅ’은 유기음이 없기 때문에 경음인 ‘ㅆ’으로 축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. 다만, 축약은 두 음운의 성질을 다 가지나 ‘ㅆ’은 그렇지 않다.

(2) 모음축약 : 두 모음이 한 모음이 되는 현상.

예) 사이>새, 아이>애, 보이다>뵈다, 꿩>꿩, 뭍야→모야¹⁾

(3) 음절 축약 : 어느 한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. 음운의 축약이 아니다. 이 현상은 ‘이, 오, 우’의 반모음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. 앞의 반모음화(활음화) 참조.

1) ‘꿩>꿩’과 ‘뭍→모’는 ‘wə → wo → o’와 같이 ‘w’가 뒤의 ‘ə’를 원순화시킨 뒤에 탈락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.

- ① ‘이’의 반모음화 : 그리+어→ 그려, 먹이+어→ 먹여, 남기+어→ 남겨
 ② ‘오/우’의 반모음화 : 오+아서→ 와서, 두+었다→ 뒀다, 맞추+어→ 맞춰

[한글맞춤법 제38항]

○ ‘ㄱ, ㄴ, ㄷ, ㄹ’ 뒤에 ‘-이어’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.

본말	준말	본말	준말
싸이어	싸어, 싸여	뜨이어	띄어 ²⁾
보이어	보어, 보여	쓰이어	쓰어, 쓰여
쏘이어	쏘어, 쏘여	트이어	띄어, 트여
누이어	누어, 누여		

준말에서 전자(싸어)는 음운축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, 후자(싸여)는 ‘이’ 반모음화에 의해 형성된 형태이다.

4) 탈락

- 개념 : 두 음운이 만날 때 어느 한 음운이 탈락하는 현상.

(1) 자음 탈락

① ㄹ-탈락

ㄱ.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 ‘ㄷ, ㄴ, ㅅ, ㅈ’ 앞에서 ‘ㄹ-탈락.(역사적 현상)’

예) 딸님→따님, 솔나무→소나무, 부나비(불-나비), 달달이→다달이, 말되→마되,
 부삽(불-삽), 물자위→무자위, 바느질(바늘-질), 싸전(쌀-전)

<참고> 현대국어에서 합성명사는 ‘버들+나무→[버드나무]/[버들라무] 솔+나무→[소나무]/[솔라무]’처럼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. 또한, 현대에 생성된 단어인 경우는 오히려 유음화가 일반적이다. ‘별+님 → [별림], 달+님 → [달림], 글+나라 → [글라라], 달+나라 → [달라라]’, 돌산, 쌀집, 발길질

ㄴ. ‘ㄹ’을 끝소리로 가진 용언 어간에 몇몇 어미가 결합할 때

예) 알- + -느냐 → 아느냐, 갈- + -는 → 가는, 등글- + -니 → 등그니, 알- + -으
 신다 → 아신다, 울- + -비니다 → 읊니다, 살- + -ㄹ(관형사형 어미)

② ㅎ-탈락

- ‘ㅎ’을 끝소리로 가진 어간은 모음과 모음 사이,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‘ㅎ’이 탈락한다. ‘ㅎ’은 어두에서만 위치할 수 있을 뿐, 비어두에 놓이면 다른 자음으로 바뀌거나 탈락한다. (표준발음법 [제12항])

ㄱ. ‘ㄴᄇ, ㄹᄇ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ㅎ’을 발음하지 않는다.

2) 다만, ‘띄어쓰기, 띄어 쓰다, 띄어 놓다’ 따위는 관용상 ‘뜨여쓰기, 뜨여 쓰다, 뜨여 놓다’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.

않네[안네] 않는[안는] 똥네[똥네 → 똥레] 똥는[똥는 → 똥른]³⁾

ㄴ. ‘ㅎ(ㄴㅎ, ㄹㅎ)’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ㅎ’을 발음하지 않는다.

낱은[나은], 놓아[노아], 쌓이다[싸이다], 많아[마:나], 앓은[아는], 닳아[다라], 싫어도[시러도]

③ 자음군 단순화

- 음절말에는 자음이 하나만 올 수 있다는 음절구조제약 때문에, 두 자음 중 한 자음이 탈락된다.
-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‘자음군단순화’를 음절끝소리 현상의 하나로 처리하였다. 그러나 두 현상은 그 성격이 다르다. 전자는 ‘탈락’ 현상이며, 종성에 자음이 하나만 올 수 있다는 음절구조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 적용된 현상이다. 반면, 후자는 ‘교체’ 현상이며 음절구조제약 중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7자음(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)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 적용되는 현상이다.

ㄱ. 겹받침 ‘ㄲ’, ‘ㄴㄷ’, ‘ㄹ’, ‘ㄹ’, ‘ㄹ’, ‘ㄹ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ㄴ, ㄹ, ㅂ]으로 발음한다.[표준발음법 제10항]

넋[넉] 넋과[넉과] 앓다[안따] 여덟[여덜]
넋다[넉따] 외곶[외골] 핥다[할따] 값[갑] 없다[업:따]

다만, ‘뽕 -’은 자음 앞에서 [뽕]으로 발음하고, ‘넋 -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[넉]으로 발음한다.

- (1) 뽕다[뽕:따], 뽕소[뽕:쏘], 뽕지[뽕:찌], 뽕는[뽕:는 → 뽕:는], 뽕게[뽕:게]
- (2) 넋 - 죽하다[넉쭈카다] 넋 - 동글다[넉똥글다]

ㄴ. 겹받침 ‘ㄹ’, ‘ㄹ’, ‘ㄹ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ㅁ, ㅂ]으로 발음한다.[표준발음법 제11항]

닭[닥], 흉과[흉과], 맑다[막따], 늪지[늪찌], 삼[삼:], 젊다[점:따], 읊고[읍꼬], 읊다[읍따]

다만, 용언의 어간 말음 ‘ㄹ’은 ‘ㄱ’ 앞에서 [ㄹ]로 발음한다.

맑게[말께] 묶고[물꼬] 엮거너[엮꺼나]

(2) 모음 탈락

① ‘으’ 탈락

ㄱ. 용언 어간의 끝모음 ‘으’는 모음 어미와 연결되면 반드시 탈락한다.

예) 크+어서 → 커서, 쓰+어도 → 써도, 담그+어도 → 담가도,

3) ‘ㄹ’을 끝소리로 가진 용언 어간에 ‘ㄴ’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‘ㄹ’이 탈락되는 현상을 고려하면, ‘똥네’는 ‘똥네 → (유음화) 똥레 → (ㅎ탈락) 똥레’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해야 한다. 그렇지 않고 ‘똥네 → 똥레 → *똥레’처럼 ‘ㅎ’탈락이 먼저 적용되면 용언 어간의 ‘ㄹ’이 어미의 ‘ㄴ’을 만나 탈락하기 때문에 올바른 도출형을 얻을 수 없다.

모으+아라 → 모아라, 따르+아서 → 따라서

ㄴ. 유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또는 용언 어간 뒤에서 어미초의 ‘으’ 탈락⁴⁾

예) 발+으로 → 발로, 알+으면 → 알면, 살+으면 → 살면, 머리+으로 → 머리로

<참고-표기법> 용언 어간이 ‘ㄹ’로 끝나는 경우 명사형어미 ‘-음’이 결합하면 ‘으’가 탈락한다(돌- + -음 → 둠, 날- + -음 → 님). 반면에, 파생접미사 ‘-음’이 결합하면, ‘으’는 탈락하지 않는다(놀- + -음 → 놀음, 얼- + -음 → 얼음).

② 동일 모음 탈락

- ‘아’나 ‘어’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‘아’나 ‘어’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 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.⁵⁾

예) 가- + -아서 → 가서, 차- + -아서 → 차서, 건너- + -어서 → 건너서, 퍼- + -어 → 퍼, 서- + -었다 → 섰다.

5) 첨가 : 사잇소리 현상

(1) 개념 :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, 그 사이에 사잇소리를 삽입시키는 현상이다. 이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빨리 끝닫게 하고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한다. 이는 표현 효과의 확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. 같은 조건인데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예가 많아 뚜렷한 규칙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. [표준발음법 제28항~제30항]

(2) 유형 :

- ① 후두음(?) 첨가 :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⁶⁾

예) ㄱ. 촛불[초뿔] 시냇가[시내까], 뱃사공[배싸공];

ㄴ. 밤길[밤길], 촌사람[촌싸람], 길가[길까](경음화와 구별)

- ② ‘ㄷ’첨가 :

ㄱ. 첨가된 사이시옷이 발음되는 현상. 이때는 경음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.

예) 촛불[촛뿔], 뱃사공[뱃싸공], 시냇가[시넹까]

ㄴ.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‘ㄷ, ㄴ’으로 시작될 때, ‘ㄴ’이 첨가되는 경우. 이때는 ‘ㄷ’이 먼저 첨가되고, 연속적으로 후행하는 ‘ㄷ, ㄴ’에 동화되어 ‘ㄷ’이 ‘ㄴ’으로 바뀐다.

예) 잇몸(이+몸) → (임몸) → [인몸], 콧날(코+날) → (콘날) → [콘날]

4) 어미의 기저형을 ‘-로, -면’으로 보면 유음 이외의 자음 뒤에서 ‘으’가 첨가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첨가 현상이 모든 경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(먹는 → *먹으는, 먹세 → *먹으세). 어미의 기저형이 ‘으’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‘ㄱ, ㄴ’ 등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를 연결시켜 본다. 먹-으며, *먹며/ 먹-고, *먹으고/ 잡-으니, *잡니/ 잡-니?/*잡으니?,

5) ‘가+아’에서 ‘가’의 ‘ㅏ’가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. 어미 ‘-아’가 탈락했다고 보면 한 형태소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온다.

6) 첨가 현상이라는 면에서 보면 ‘촛불[초뿔]’에는 ‘?’(후두음) 첨가가, ‘촛불[촛뿔]’은 ‘ㄷ’첨가가 일어났다. 표준발음법에서는 [초뿔]을 원칙으로 하고, [촛뿔]도 허용하고 있다.

③ ‘ㄴ’ 첨가 :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,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‘이, 야, 여, 요, 유’인 경우에는, ‘ㄴ’ 음을 첨가하여 [니, 나, 녀, 뇨, 뉴]로 발음한다.⁷⁾[표준발음법 제29항]

ㄱ. 숨 - 이불[숨:니불], 흙 - 이불[흔니불], 막 - 일[망닐], 샅 - 일[상닐], 맨 - 입[맨닙], 꽃 - 잎[꼴닙], 내복 - 약[내:봉낙], 한 - 여름[한녀름], 남존 - 여비[남존녀비], 신 - 여성[신녀성], 색 - 연필[생년필], 직행 - 열차[지캐널차], 늑막 - 염[능망념], 콩 - 옛[콩녜], 담 - 요[담:뇨], 눈 - 요기[눈뇨기], 영엽 - 용[영엄농], 식용 - 유[시공뉴], 국민 - 윤리[궁민눌리], 밤 - 옷[밤:눈]

다만, 다음과 같은 말들은 ‘ㄴ’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,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.

이죽 - 이죽[이중니죽/이주기죽], 야금 - 야금[야금냐금/야그먄금], 검열[검:넌/거:멸], 올랑 - 올랑[올랑놀랑/올랑올랑], 금융[금녕/그똥]

ㄴ. ‘ㄹ’ 받침 뒤에 첨가되는 ‘ㄴ’ 음은 [ㄹ]로 발음한다.(ㄴ첨가→유음화)

들 - 일[들:릴], 솔 - 잎[솔립], 설 - 익다[설릭따], 물 - 약[물략], 불 - 여우[불려우], 서울 - 역[서울력], 물 - 옛[물련], 휘발 - 유[휘발류], 유들 - 유들[유들류들]

ㄷ. 두 단어를 한 마디로 이어서 발음할 때(기식군)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.⁸⁾

한 일[한닐], 옷 입다[온닙따], 서른여섯[서른녀섯], 3 연대[삼년대], 먹은 옛[머근녜], 할 일[할릴], 잘 입다[잘립따], 스물여섯[스물려섯], 1 연대[일련대], 먹을 옛[머글련]

다만,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‘ㄴ(ㄹ)’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.

6.25[유기오], 3.1절[사밀쩔], 송별 - 연[송:벼련], 등 - 용문[등용문]

[표준 발음법 : 제7장 음의 첨가]

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1.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이시옷을 [ㄷ]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넋가[내:까/넌:까], 셋길[새:길/샌:길], 빨랫돌[빨래돌/빨랜돌]

콧등[코똥/콘똥] 깃발[기빨/길빨] 대팻밥[대:패뺑/대:팬뺑]

햇살[해쌀/헨쌀], 뱃속[배쑥/뱌쑥], 뱃전[배쩨/뱌쩨], 고갯짓[고개쩨/고갬쩨]

2. 사이시옷 뒤에 ‘ㄴ, ㅁ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]으로 발음한다.

콧날[콘날 → 콘날], 아랫니[아랜니 → 아랜니], 툇마루[툼:마루 → 툼:마루]

뱃머리[뱌머리 → 뱌머리]

3. 사이시옷 뒤에 ‘이’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ㄴ]으로 발음한다.

베갯잇[베갬닐 → 베갬닐] 깻잎[깻닙 → 깻닙] 나뭇잎[나뭇닙 → 나뭇닙]

도리깻잎[도리깻닐 → 도리깻닐] 뒷뭇[뒷:눈 → 뒷:눈]

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,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(휴

7) ‘ㄴ’첨가 : 주로 합성어를 이루는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지만, 파생어의 구성 성분 사이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기도 하며,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다양한 환경에서 ‘ㄴ’첨가가 일어나기도 한다. 예) 파생어의 경계에서 : 헛+일[헛닐], 맨+입[맨닙]

8) 기식군(氣息群) : 중간에 숨이 없이 한 호흡에 발음되는 발화 단위(목적어+서술어, 부사어+서술어, 관형어+주어).

지가 성립되는) 합성어의 경우에는, 뒤 단어의 첫소리 ‘ㄱ, ㄷ, ㄴ, ㄱ, ㅈ’을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문 - 고리[문꼬리]	눈 - 동자[눈동자]	신 - 바람[신빠람]	산 - 새[산새]
손 - 재주[손째주]	길 - 가[길까]	물 - 동이[물동이]	발 - 바닥[발빠닥]
굴 - 속[굴:속]	술 - 잔[술잔]	바람 - 결[바람결]	그믐 - 달[그믐달]
아침 - 밥[아침밥]	잠 - 자리[잠자리]	강 - 가[강까]	초승 - 달[초승달]
등 - 불[등불]	창 - 살[창살]	강 - 줄기[강줄기]	

(3) 사이시옷의 표기 : 필수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수의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.[한글맞춤법 제30항]

① 필수 조건

ㄱ. ‘N1 + N2’이면서 ‘N1’이 모음으로 끝난다.(‘N’은 명사)

ㄴ. ‘N1’과 ‘N2’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.

② 수의 조건 :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.

ㄱ. ‘N2’가 된소리로 발음된다.

ㄴ. ‘ㄴ’소리가 첨가된다.

ㄷ. ‘ㄴㄴ’소리가 첨가된다.

③ 한자어 합성어의 경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. 예) 내과[내과], 초점[초점] (예외 : 숫자, 셋방, 곳간, 횃수, 텃간, 찻간)⁹⁾

④ 사잇소리 현상의 불규칙성 -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 사잇소리 현상이 뚜렷한 규칙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ㄱ. 합성어가 형성될 때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.

예) 고래기름, 참기름, 기와집, 오리발, 은돈

ㄴ.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.

예) 김밥[김:밥]/아침밥[아침밥], 인사말[인사말]·머리말[머리말]/요새말[요새말]·시čet말[시čet말], 고무줄[고무줄]/빨랫줄[빨래줄, 빨랜줄], 회수(回收)[회수]/횃수(回數)[회수, 횃수]

ㄷ. 사잇소리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기도 한다.

예) a. 나무+집(나뭇집) → [나무집] : 나무를 파는 집.

a'. 나무+집 → [나무집] : 나무로 만든 집.

b. 고깃배[고기배]-漁船

b'. 고기배[고기배]-魚腹

⑤ 결론적으로 사잇소리 현상은 그 규칙성을 찾기도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규정 역시 문제가 많다.

9) 여섯 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하고 있는 이 규정은 특히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. 다음과 같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호수(湖水)[호수]/호수(戶數)[호:수], 대가(大家)[대가]/대가(代價)[대:까], 시가(市街)[시:가]·시가(娉家, 詩歌)[시가]/시가(時價, 市價, 始價)[시:까]

[한글 맞춤법 : 사이시옷 규정]

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.

1.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 - 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긱밥, 나룻배, 나뭇가지, 냇가, 댕가지, 맷돌, 머릿기름, 모깃불, 못자리, 바닷가, 뱃길, 부싷돌, 선짓국, 아랫집, 잇자국, 잣더미, 조갯살, 찻집, 핏대, 햇볕
 - (2)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것
멧나물, 아랫니, 텃마당, 아랫마을, 뒷머리, 잇몸, 깻묵, 냇물, 빗물
 - 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소리가 덧나는 것
도래깻열, 뒷웃, 두렛일, 뒷일, 뒷입맛, 베갯잇, 옷잇, 깻잎, 나뭇잎, 댕잎
2.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 - 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긱병 사자밥 샛강 아랫방 전셋집 찻잔 콧병 탕줄 텃 세
핏기 ※ <참고> 핑크빛, 피자집/ 은행나무길(道路名)
 - (2)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것 :
겻날 제삿날 훗날 양치물
 - 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소리가 덧나는 것 :
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
3.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:
곳간(庫間) 셋방(貰房) 숫자(數字) 차간(車間) 퇴간(退間) 횡수(回數)
<참고> 효과(效果)[효:과], 초점(焦點)[초:점], 대가(代價)[대:까], 개수(個數)[개:쑤], 내과
(內科)[내:과], 화병(火病)[화:병], 소수(素數)[소:쑤], 제상(祭床)[제:쌍]

6) 이화

성질이 비슷한 두 음소가 성질이 달라지는 현상(이질음으로의 교체). 공식적으로는 비규범적인 모음조화 파괴 현상이 이에 속한다.

예) 먼저 >먼저, 거북 > 거북, 도로 → 도루, 잡고 → 잡구